

6·25전쟁 기간 중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

- 작전·전술교리 및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

임 성 채*

1. 머 리 말
2. 6·25전쟁 발발과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
3. 한국해군의 작전·전술교리에 미친 영향
4. 한국해군의 전문인력에 미친 영향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과 소련을 각 축으로 하는 체제가 양쪽으로 갈라진 것이다. 한반도 또한 이 체제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 해군본부 역사기록관리단 편찬과장

남과 북의 정치체제는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소련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구축되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형성된 세계적 냉전체제라는 상부구조에 종속된 하나의 하부구조였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미국은 대소(對蘇)봉쇄전략의 최전방에 위치한 한국에 대한 군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소련과의 정치적·군사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미국의 극동전략은 세계적 전략 요충지대로 진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이른바 대소봉쇄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구상되었다. 아시아 대륙 안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태평양방위에 필요한 국가나 도서가 공산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1950년 1월 12일 태평양방위선을 알래스카-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설정하여, 이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태평양방위선에서 제외된 한국이나 대만 등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략공군의 핵무기로서 공산세력의 침략을 억제하게 되어 태평양방위선을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이를 단순히 북한만의 침략으로 보지 않았으며, 공산국가인 소련의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취하여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였다. 미국은 이미 공산화된 중국대륙에 이어 한반도마저 공산화될 경우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미칠 파급적인 영향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미국은 공산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조약상 방위의무와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여 유엔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공산권 국가에 보여주기로 하였다.²⁾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서울 : 국방부, 1987), p. 10.

2)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pp. 183-207.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안보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전초기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을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일본의 남쪽 해로에 대한 방위가 불가피하여 대만을 보호하게 되었다. 미국은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극동지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태평양방위선에 한국과 대만을 포함시켰다.³⁾

미국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하고 남한국토를 전쟁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전쟁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전쟁수행 과정에서 한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한국군에게 공격무기를 제공해야 했으며, 전쟁당사국인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사장비가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한미 쌍방 간의 이익이 상호 일치됨에 따라 한국군이 필요한 무기나 장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군의 당면 과제였던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전투력이 단기간에 구비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된 것은 단지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군사력 증강은커녕 북한의 무력에 의해 적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전쟁기간 중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나, 미국이 어떤 정책을 수행했느냐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달라질 수 있었다. 전쟁기간에 수행한 미국의 정책이 한국해군력 증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 전쟁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까지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6·25전쟁 중 미국이 수행한 대한군사정책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해군력은 조직·부대, 작전·전술교리, 함정·장비, 전문인력, 지휘관의 지휘능력, 부대원의 정신력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이 한국해군의 작전·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 p. 11.

전술교리와 전문인력 양성에 미친 영향을 중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논제와 관련하여 과거에 연구한 실적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6·25전쟁기를 중심으로 한국해군력 증강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6·25전쟁기를 제외한 한국해군력 발전에 대한 연구논문이 다수 있는데, 창군기와 미래의 해군력 발전에 대한 연구들이다. 군사사(軍事史) 편찬을 주 임무로 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1권의 『한국전쟁사』를 편찬하였고, 최근에 전쟁 당사국들이 6·25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쟁사를 토대로 재편찬 작업에 들어가 2004년부터 『6·25전쟁사』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6·25전쟁 중 중공군과 북한군을 포함한 한국군과 유엔군의 군사력 운용과 작전경과 위주이며, 각군의 전력증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다. 해군역사를 편찬하는 해군본부의 역사기록관리단에서도 주요 작전의 경과에 대해서만 기술했을 뿐이고, 해군의 전력증강에 대해 분석·평가한 연구가 없다. 더군다나 미국의 대한군사정책과 한국해군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은 없다. 따라서 본 논제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차후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6·25전쟁 기간 중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에 대한 내용은 주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서 발간한 공간사(公刊史) 자료를 참고하였다. 한국해군의 작전·전술교리에 대한 내용은 미국에서 발간한 『한국에서의 해전(The Sea War in Korea)』(1957년), 『한국에서 미국해군의 작전사(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1962년)라는 책을 주로 활용하였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은 미국에서 발간한 『주한군사고문(Military Advisors in Korea)』(1962), 한국 국방부에서 편찬한 『국방사 : 1950. 6 - 1961. 5』(1987년)와 한국 해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1954년),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2집(1957년)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미국과 한국에서 발간한 공간사(公刊史)로부터 수집할 수

없는 것은 창군기와 6·25전쟁기 해군에서 복무했던 해군출신 인사들로부터 증언을 통해 일부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본 논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본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논문, 학술지, 책자 등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내어 보완하였다.

2. 6·25전쟁 발발과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

6·25전쟁 발발 이전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은 국내치안에 필요한 방어무기만을 지원하는 등 소극적이었지만, 소련의 대북한군사정책은 공격무기를 지원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군사력은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였다.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 기점이 된 때는 1949년 3월이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쉬티코프 소련대사를 계속 압박한 끝에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났다. 이 만남에서 다뤄진 핵심내용은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었다. 1949년 10월 중공이 탄생하자 김일성은 전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의 남침계획은 1950년 5월 29일 '선제타격 작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었다. 이 계획은 3단계의 작전으로 구분되며, 공격집단을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 지역에 집중하여 공격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2일 내에 서울 부근의 남한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하고, 그 후 전과를 확대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것이다.⁴⁾ 이 계획에 따라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남침을 개시하였다. 웅진반도로부터 개성, 전곡, 포천, 춘

4) 『인민군공격작전의 정보계획』(북한인민군총사령부, 1950. 6.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123-137 ;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서울 : 오비기획, 2002), p. 31.

천, 양양에 이르는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동해안의 강릉과 임원진에 육전대(해병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 서울을 목표로 한 북한군 제1군단은 연천-의정부-서울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고, 남천점-개성-문산-서울 축선에 조공을 지향시켜 서울을 양면에서 포위하면서 진격하였고, 중·동부 전선에서도 계획된 축선을 따라 남하하였다.⁵⁾

북한군은 6월 26일 의정부 점령에 이어 38도선으로부터 불과 40km 남쪽에 위치한 서울을 남침 3일 만에 6월 28일 새벽에 점령하였다.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워 남쪽으로 진격하기 위해 6월 30일부터 전차도하를 시도하여 7월 3일부터 복구된 철교를 이용한 도하에 성공하였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유리한 전세하에서 남진을 계속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성, 국방성 그리고 합참이 포함된 전쟁지휘부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북한군을 격퇴시켜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로 하고, 이를 유엔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북한의 남한 침공이 유엔과 미국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과 일본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이 회의를 통해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의 권위 아래 행동할 것이며 만일 북한이 도발중지와 38도선으로의 철수를 거부할 경우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하였다.⁶⁾

미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은 6월 26일 긴급히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이 제출한 ‘북한군의 침략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은 결의안을 통한 강력한 요구에 침략자들이 순응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유엔안보리의 경고성 결의를 무시하였으며 침략행위를 중지하지도 않았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6월 27일 유엔의 ‘6·26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남침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서울 : 국방부, 2005), p. 55.

6) 남정욱, 『한미군사관계사 : 1871-200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329.

선언하고 한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⁷⁾ 이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회원국들이 참전을 결정하는 등 신속한 군사행동을 취하였다. 미국은 6월 27일 제2차 국가안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남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로서 참전을 결정하는 한편, 유엔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종용하였다. 미국은 6월 27일 한국에 대하여 해군과 공군지원을 결정하고, 미 제7함대를 일본에 위치한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였다.⁸⁾ 그리고 7월 1일에는 지상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계기로 아시아의 공산주의 세력도 유럽의 공산주의 세력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호전적인 침략세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미 공산화된 중국대륙에 이어 한반도마저 공산화될 경우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미칠 파급적인 영향과 위협을 고려하여 한반도를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지역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 계기로 공산권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조약상 방위 의무의 유무를 떠나서 즉각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공산권 국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⁹⁾ 이러한 평가와 판단에 따라 미국은 종전의 극동전략에 수정을 가하여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되었던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¹⁰⁾

유엔으로부터 유엔군에 대한 지휘권한을 위임받은 미국은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시킨다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6·25전쟁은 전면전 발발을 우려하여 제한전쟁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의 연합작전은 전략·작전목표, 작전지

7)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vol Ⅶ, p. 128.

8) Ibid., pp. 181-182.

9)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pp. 183-207.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 p. 14.

역, 무기운용 등에서 제한 또는 규제가 수반되었다. 전략·작전목표와 작전 지역은 전황에 따라 변경되었지만, 전쟁기간 내내 재래식 무기 위주로 작전이 수행되었고, 핵무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군을 지휘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미합참이나 미극동군사령부에는 한국전장에서 수행할 작전계획이 없었고, 작전계획을 수립할 근거가 되는 정보판단서조차도 없는 실정이었다.¹¹⁾ 한국전선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맥아더 장군에게는 구체적인 군사목표가 담긴 미합참의 전략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 맥아더 장군은 구체적인 지침이 생략된 임무형 명령만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전쟁 초기 맥아더가 미정부에 요구하여 받은 지시내용은 전쟁발발 이전 상태의 남한국토의 회복과 북한군 격멸이 전부였다.¹²⁾

미극동해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 등 상급부대로부터 지침을 받아 예하의 유엔해군을 지휘하였다. 해군력은 공해를 통해 작전해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엔해군의 연합작전에서 전투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미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유리한 전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해양통제권 장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¹³⁾ 이를 위해 그는 한반도의 해양환경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한국해군이 연합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함정, 장비 등을 한국해군에 지원하였다. 한국해군이 전쟁발발 이전부터 함정과 장비 지원을 미국에 요구해 왔던 것이 전쟁발발로 인하여 한미 상호 간의 이익이 일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다.

미극동해군은 한국해군과 재래식 무기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군작전에 필요한 유형별 함정과 장비를 한국에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상륙작전에 필요한 해병대의 전투무기, 소해작전을 위한 소

11) Roy K. Flint, "The Tragic Flaw : MacArthur, The Joint Chiefs, and the Korean War",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76), p. 90.

12) Ibid., p. 101.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3권, (서울 : 국방부, 2006), p. 97.

해장비, 봉쇄작전 및 호송작전을 위해서는 한국해군에 대잠·대함·대공 장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엔해군은 해군력의 이점과 지리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기간 내내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군작전의 대부분을 실시하였다. 유엔해군은 우세한 세력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해 해양통제권을 장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봉쇄, 함포지원, 항공강습작전 등으로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고, 해상을 통해 병력과 군사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함으로써 연합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엔군의 해군력은 단순히 지상군 작전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산교두보 확보와 낙동강 방어선의 형성, 반격을 위한 인천상륙작전, 한반도 북동부에 제10군단을 전개하기 위한 원산상륙작전 그리고 중공군의 침공에 따라 유엔군의 재배치를 위한 흥남철수작전 등 지상에서 수행된 일련의 대규모 작전과 기동전이 해군력에 바탕을 둔 해군작전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작전 및 전술적 차원에서의 해군작전도 지상작전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되었다. 항모기동부대의 북한지역에 대한 강습, 적 수송로에 대한 폭격, 근접항공지원 그리고 해상봉쇄부대의 해상봉쇄작전, 함포지원작전 등 공세작전이 지상군 작전에 지원되었다. 이러한 공세작전과 더불어 유엔해군은 지상군의 진격과 철수를 위해 해상으로부터의 군수물자 및 병력수송, 상륙작전, 소해작전, 철수작전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해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한국이 세장형의 반도 국가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6·25전쟁은 유엔군의 입장에서 해군력의 이점과 지리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전쟁으로서 전쟁기간 동안 근접항공지원작전, 항모강습작전, 해상봉쇄작전, 호송작전, 함포지원작전, 소해작전, 상륙작전, 철수작전 등 해군작전의 대부분이 수행되었다. 한국해군은 전쟁의 당사국으로서 미해군으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함정과 장비를 지원받아 근접항공지원작전과 항모강습작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전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실전경험을 통해 한국해군은 선진국

해군의 작전·전술 등을 획득하였다.

한국군은 미군정 때부터 미국의 대외원조법의 변천에 따라 여러 형태의 군사원조를 받았다. 정부수립 이전 미군통치시 경비대에 제공된 장비는 미군들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서 미군자산의 일부였다. 미군은 남한 내의 소요 진압, 38도선 경비,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경비대 역할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만을 제공하였다. 최초의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군에게 양도한 5,600만 달러 상당의 군원이었다.¹⁴⁾ 이것은 국가 간의 원조협정에 의한 원조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군원의 형태로 보고 있다. 1950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한국에 배정된 군원자금 1,097만 달러는 정상적인 군원법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1,097달러 중에서 전쟁발발 이전까지 한국이 수령한 군원품은 35만 1,000달러 정도였는데, 대부분이 잉여장비와 물자였다. 한국에 지원할 장비와 물자 중 일부는 미군 내에서도 부족하여 민수용에서 새로이 조달하거나 일부는 미국무성 재고품에서 반출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한군사지원은 지연되었다.¹⁵⁾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대한군사지원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소극적 지원정책에서 전쟁의 계기로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¹⁶⁾ 미국은 6월 26일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 : 이하 미군사고문단)이 요구한 보급물자를 긴급히 수송할 것을 결정하고, 미국동군사령부에 10일간의 탄약과 보급품들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송토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맥아더 장군에게 미국동군사령부의 재고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한국군에게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의 규정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6월 27일 경제협조처(ECA)도 대한원조를 긴급사태에 준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물자와 함께 비군사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 p. 315.

15) 위의 책, p. 316.

16) 위의 책, pp. 316-317.

적인 물자를 한국으로 운송할 것이라고 하였다. 7월 1일 미지상군의 참전 결정으로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에게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비롯한 모든 군수물자는 미국이 전담하였다.

전쟁발발 이전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1950년 1월 26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한 정상군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미군에 의한 직접군원 방식이 병행되었다.

유엔이 6월 27일 한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미국은 군사력 투입과 함께 미의회의 승인 없이 한국군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투무기를 비롯한 유류·총포·탄약·차륜·물자 등을 한국에 지원하였다. 이때 한국군이 받은 원조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수령한 군수물자를 자대의 군수지원계통을 통하여 한국군 부대에 직접 보급한 것이다. 이른바 ‘직접군사원조’라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¹⁷⁾

원조 규모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연감·4290』에 의하면 연간 3-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뿐,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유는 전쟁기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던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쟁장비와 물자를 미군의 군수지원계통으로 수령함에 따라 미군이 직접 지원한 군원자금이 각 국가별로 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외원조법이나 군사지원계획에 의한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미군의 장비, 무기 등 군수물자의 일부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¹⁸⁾ 이와 같이 전쟁 동안 미군의 직접군원에 의해 한국해군은 단기간 내에 전투함정을 비롯한 장비 및 군수물자를 대폭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17) 위의 책, p. 317.

18) 위의 책, pp. 317-318.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정상적인 군사원조와 미군의 직접군사원조를 받아 전쟁을 수행하던 중 1952년 1월 7일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에 의해 미국과 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외원조법이 상호방위원조법에서 상호안전보장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대외원조 중점이 경제원조 위주에서 군사원조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군사·기술원조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원조가 미국과 피지원국의 상호안전보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안전보장처를 통하여 집행되도록 통합되었다. 즉 경제협조처를 통한 원조는 중단되고 상호안전보장처로 통합된 것이다. 그런데 전쟁기간 중에는 주로 미군에 의한 직접군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상군원은 극히 일부의 물자도입과 군사교육 등에 국한되었다. 그 규모는 1,5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기간 정상군원에 의한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규모는 <표 1>과 같다.¹⁹⁾

<표 1> 6·25전쟁 기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규모(정상군원)

단위: 100만 달러

연 도	1950	1951	1952	1953	계
규 모	0.1	10.8	0.8	3.7	15.4
한미원조협정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한·미상호안전보장협정		
대외원조법	상호방위원조법(MDAA)		상호안전보장법(MSA)		

* 출처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서울 : 국방부, 1987), p. 319.

한국육군에 대한 미군사고문단의 지원은 1946년 1월 미 제24군단에 의해 설치된 임시군사고문단부터 시작되었으며²⁰⁾, 해군은 맥케이브(George E. McCabe) 대령 등 15명의 미해안경비대 고문관들이 한국에 도착한 1946년

19) 위의 책, pp. 318-319.

20) 남정욱, 『한미군사관계사 : 1871-2002』, p. 274.

9월 1일부터였다.²¹⁾ 정부수립 이후에도 미군사고문단은 1948년 8월 24일 한미간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에 의해 계속 존속되었다. 1948년 8월 26일 초대 주한미국대사로 취임한 무초는 주한미외교사절단 산하에 임시군사고문단을 설치하고, 단장으로 로버트(Roberts) 장군을 임명하였다. 주한미군의 마지막 제대가 1949년 6월 29에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자 7월 1일 미군사고문단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²²⁾

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요한 업무는 미군장비 및 물자 이양, 대한군사지원 집행, 한국군 조직 및 교육훈련 지원, 군사시설의 관리, 유사시 주한미국인 안전철수 업무 등이었다.²³⁾ 발족시 476명이었던 미군사고문단의 병력은 1949년 12월 31일에는 492명(현역 472명, 군무원 20명)이었는데, 현역은 대부분 육군에 배치되었다. 군무원 20명은 해군고문관 9명, 경찰 통역 및 번역관 1명, 고문단 참모부 비서 겸 타자요원 5명, 기타 5명이었다.²⁴⁾ 한국해군에는 미고문단 발족시 현역고문관 6명이 배치되었지만, 12월 말 모든 고문관이 군무원 9명으로 교체되었다. 이들 중 3명은 해군본부에, 2명은 해군사관학교 및 진해통제부에, 나머지 4명은 기타 부대에 배치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사고문단은 자국의 위기조치계획에 따라 한국의 육군본부에 파견된 일부 고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수하였으나, 미국의 참전이 확실해지고 미극동군사령관이 미군사고문단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함에 따라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여 한국군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게 되었다.

전쟁 초기 미군사고문단의 지원은 한국군의 작전, 정보, 군수, 통신, 교육훈련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실시되었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개시되고 전선이 다소 안정되자, 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1)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1집, (대전 : 해군본부, 1954), p. 27.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권, (서울 : 국방부, 2004), p. 124.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45. 8-1950. 6』, (서울 : 국방부, 1984), pp. 333-334.

24)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 50.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었다.²⁵⁾ 이는 미국으로부터 선진 군사교육을 받은 한국의 엘리트 장교들이 전쟁이 끝난 후 독자적으로 군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군사고문단은 먼저 한국군에 병과학교를 설립하여 병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시 미군원자금으로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병과교육을 받게 하였다.

미군사고문단의 비만(Lewis D. Vieman) 육군 중령은 한국육군의 병과별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기존 8개 병과학교에 대한 인력 및 시설보장을 비롯한 참모학교·보병학교·부관학교·병참학교·경리학교·의무학교를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의 4년 교육제도 정립, 각 병과학교의 고급과정 설치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²⁶⁾ 이 계획에 의해 전쟁으로 인하여 폐쇄되었던 각 병과학교 교육이 재개되었고, 1952년 1월에는 4년제 육군사관학교 제1기생이 교육을 받게 되는 등 교육훈련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51년 말에는 미군사고문단의 요청으로 250명의 한국의 육군장교가 미국의 병과학교에 입교하여 미국으로부터 선진 군사교육을 받았다.²⁷⁾

미군사고문단과는 별도로 한국의 해·공군을 위해 1950년 공군고문단(AFAG), 1952년 해군·해병고문단(NAMCAG)이 각각 설치되었다. 이에 육·해·공군 모두를 담당해 왔던 미군사고문단(KMAG)은 한국육군만 지원하게 되었다.²⁸⁾ 미군사고문단의 병력은 1950년 7월 470명에서 증가되기 시작하여 1951년 9월 말에는 1,308명이었고, 1952년 1,815명의 병력인가에 따라 1,953명으로 증가되었다.²⁹⁾

해군·해병고문단 및 공군고문단은 한국의 해군·해병대와 공군의 예하 부대까지 파견하여 작전, 정보, 군수, 통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들도 1952년부터 미국의 군원자금으로 한국해군과 공군의 병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 p. 320.

26)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pp. 70-71.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 p. 320.

28) 백봉중, 「미국의 대한군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1981, p. 23.

29)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p. 161.

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미국의 군사학교에 파견, 교육시켰다.

한국해군은 조선해안경비대 시기부터 미해안경비대에서 파견된 고문관들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았지만, 당시의 교육은 주로 기초적인 함운용, 조합술, 장비작동 및 정비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미해군에서 파견된 고문관에 의해 교육훈련이 이루어졌으나, 조선해안경비대 시기처럼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해군에 파견된 소수의 미고문관 인력으로서의 항해, 전담, 포술, 기관, 조타, 갑판 등 모든 병과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와 같이 부족했던 병과별 전문교육은 전쟁을 계기로 미군사고문단 지원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었던 미해군에 파견되어 군사지식을 획득한 것은 한국해군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3. 한국해군의 작전·전술교리에 미친 영향

한국해군의 작전·전술교리는 유엔해군의 연합작전을 통해 습득할 수 있었다. 창군 이후 6·25전쟁 발발까지 짧은 기간 동안 현대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한국해군이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해군의 작전·전술교리를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6·25전쟁에서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에 의해 재래식 무기로서 다양한 해군 작전이 수행되었고, 한국해군이 연합해군과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한국해군은 제반 전투에서 선진국 해군의 작전·전술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고, 아울러 한국지형에 적합한 작전·전술교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전은 육전과 해전이 분리되어 수행되었으나, 현대전은 과학과 무기의 발달로 주로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거론되어 왔던 합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선진국은 각 군의 작전·전술교리를 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³⁰⁾

6·25전쟁에서 합동작전이 처음부터 잘 운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쟁 초기 유엔의 육·해·공군 간에 연합·합동작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우군 간의 오인포격 또는 오인포격 등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1950년 6월 29일 미국해군 주노함(Juneau)의 오인포격으로 인하여 한국해군의 305정이 침몰된 일이다.³¹⁾ 출동명령을 받고 6월 28일 가장 먼저 한국해역에 도착한 주노함이 6월 29일 새벽, 동해에서 경비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JMS-305(두만강)를 적 함정으로부터 오인하여 30분 동안 포격을 가했다. 한미해군 간의 협의에 따라 한국해군이 이미 북위 37도 이남으로 완전히 철수했다고 통보를 받은 주노함이 레이더에 접촉된 표적을 적 함정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305정은 전사 8명, 중상 1명, 경상 3명의 손실을 입었는데, 상호 정보교환 부재로 초래된 불상사였다. 305정은 YMS-510정에 예인되어 포항으로 이송 중 결국 침수로 인해 침몰되고 말았다.³²⁾ 3일전 북한 수송선을 격침시킨 대한해협해전의 승전보와는 달리 이 사건은 한국해군에 큰 비보였다.

한국해역에 미국과 영국함정들이 도착하자 한국해군의 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6월 30일 수원에서 주한 미해군무관 싸이포트 중령과 만나 해상작전에 대해 협의하였다. 당시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소장은 미국에서 구매한 전투함 3척을 이끌고 귀국 중에 있었다. 한미해군 간에 협의한 결과 우군 간의 상호간섭 방지를 위해 한국해군이 북위 37도 이남을 담당하고, 유엔해군은 북위 37도 이북 해상에 대한 작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³³⁾ 이후 유엔해군은 서해상 북위 39도 35분(이후 39도 37분), 동해상에는 북위 41도 51분(이후 42도 05분)을 봉쇄작전의 한계선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전쟁확전 방지 차원에서 소련과 중국을

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3권, p. 729.

31) 위의 책, p. 729.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p. 737.

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3권, p. 670.

의식하여 조치된 것이라 볼 수 있다.³⁴⁾

그리고 305정 침몰사건으로 한국해군은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유엔해군의 함정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상호정보교환이 주요 임무였지만, 선진해군의 작전·전술교리 등 군사지식을 습득하려는 목적도 있었다.³⁵⁾

전쟁 초기 적에 비해 화력과 병력이 열세한 아 지상군이 계속 남쪽으로 밀려 전선이 부산 방향으로 압축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근접항공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 제77기동부대의 해군항공기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근접항공지원에 전념하게 되었다.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초기에는 해군·해병대와 육군·공군 간 작전·전술교리의 차이점으로 지휘통제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 및 해병대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킨 근접항공지원작전이 이후에 공군 및 육군에서 개발한 작전·전술교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당시 지상전선에는 해군함재기를 유도할 수 있는 항공함포연락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필수적인 적군과 아군 병력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의 좌표 사용, 통신기의 주파수 등에서 상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⁶⁾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중장은 함재기와 지상군 간의 원활한 통신 및 지휘통제를 위해 항공함포연락장교를 지상군 부대에 파견하라고 제1상륙기동전대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그는 대구의 합동작전본부에 파견된 게이트(Gate) 해군 소령에게 제7함대와 합동작전본부 간 직통 통신회로를 설정하고, 항공기 통제절차에 대한 단순화 방법을 연구토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의해 게이트 소령은 전방항공통제관이 그리드(Grid) 좌표로 표적을 구한 다음, 이를 다시 경위도로 환산하여 함재기 조종사에 통보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엔군은 육·해·공 합동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지휘통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

34)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Historical Center, 1962), pp. 58-59.

35) 오진근, 임성채 공저, 『손원일 제독』(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 329.

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4권 (서울 : 국방부, 2008), p. 638.

록하였다.³⁷⁾

유엔해군의 봉쇄 및 호송작전은 제96.5기동전대가 제95기동부대로 승격된 1950년 9월 12일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³⁸⁾ 제95기동부대사령관에 임명된 스미스(Allen E. Smith) 해군 소장은 봉쇄 및 호송작전에 참가하는 제95.7기동전대(한국해군)의 장병들에게 관련된 작전·전술교리를 교육시킨 후 작전에 투입시켰다. 1950년 10월 23일 요코스카에서 인수된 PF-61함(두만강)과 PF-62함(압록강)의 승조원들은 약 1개월간 미해군으로부터 봉쇄 및 호송작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작전에 투입되었다.³⁹⁾ 1951년 7월 8일부터 정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지상작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작전에서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1951년 6월 20일 제95기동부대사령관에 임명된 다이어(George C. Dyer) 해군 소장은 기함인 중순양함 로체스트(Rocheste, CA-124)에 승함하여 1952년 5월 31일까지 약 1년간 해상봉쇄 및 호송작전을 지휘하였다. 다이어 제독도 1951년 10월 8일 요코스카에서 PF-63함(대동강)과 PF-65함(낙동강)을 한국해군에 양도하고 봉쇄 및 호송작전에 대한 작전·전술교리를 교육시킨 후 해상봉쇄 및 호송부대에 합류시켰다. 이 배들은 선단호송과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경계진함으로 활동하면서 전술기동, 대함전, 대잠전, 대공전 등의 작전·전술교리를 습득하였다.⁴⁰⁾

봉쇄작전에는 북한해역에서의 어로금지작전도 포함되었다. 어로금지작전의 목적은 북한어선에 의한 해산물 공급을 저지하고, 한편 북한어선에 의한 기뢰부설을 차단하는 이중효과를 거두는 데 있었다. 동해안에서는 구축함과 호위함이 어로금지작전에 참가하였으나, 서해안에서의 작전은 지형여건상 작전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해 연안에서의 어로금지작전은 한국해군의 함정이 담당하였다.⁴¹⁾ 이 결과 한국해군은 수심이 얕은 서해안에서의 기뢰소해작전과 기뢰부설작전에 대한 교리를 독창적으로 개발하게

37) 위의 책, pp. 638-639.

38)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p. 212.

39) 최효용 증언(2002. 4. 30)

40) 위의 증언

41)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 Naval Institute, 1957), p. 347.

되었고, 아울러 어선에 의한 기뢰부설 및 소해방법을 고안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었다.

제95기동부대사령관 다이어 제독은 예하 함장들에게 ‘이번 전쟁은 창의력을 키우고 지휘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고 무기운용과 연계하여 다양한 작전 및 전술교리를 적용시키고, 도출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새로운 작전·전술교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다.⁴²⁾ 미7함대 소속의 제5순양함전대사령관 알레이 버크(Arleigh A. Burke) 제독은 기함인 중순양함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135)에 승함하여 기함을 비롯한 예하 전투함에 편승한 한국해군의 연락장교들에게 장비운용을 비롯한 연합작전에 필요한 다양한 작전·전술교리를 습득하도록 하였다. 당시 해사 1기생부터 6기생에 이르는 연락장교들은 연합작전에 필요한 다양한 작전과 전술을 습득하여 전쟁 후에 해군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⁴³⁾

이와 같이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의 연합해군작전에서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작전·전술교리를 획득 또는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인천상륙작전에서 상륙작전시 단계별 전술교리, 해상봉쇄 및 호송작전에서는 대함전, 대잠전, 대공전, 전술기동, 해상보급 등에 대한 교리, 함포지원사격에서는 함포사격절차를 포함한 그리드 좌표에 의한 탄착수정법, 그리고 소해작전에서는 한국의 해양조건에 적합한 기뢰부설 및 소해법 등이라 할 수 있다.

전쟁 당사국인 한국해군은 연합작전과는 별도로 전황에 따라 필요시 단독작전도 수행하였다. 작전해역은 동·서·남해안 전반에 걸쳐 유엔함정이 기동할 수 없는 연안 및 도서 인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한국해군은 함정이 고장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조원의 휴식도 없이 연일 작전에 참가하였다. 3년 동안 한국해군이 실시한 작전 횟수는 연도별로 거의 비슷하였으며, 해역별로 보면 1950년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남해에서의 작전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51년부터 주요 해상전장이 중부 이북 해역이었기 때문이다. 동해에서는 영흥만 일대가 그리고 서해에서는 황해도와

42) Ibid., p. 322.

43) 오진근, 임성채 공저, 『손원일 제독』, p. 450.

서해 5개 도서의 해역이 주요 작전지역이었다. 성분작전별로는 수송작전 262회, 기습작전 42회, 상륙작전 24회, 소해작전 18개 지역, 철수작전 6회, 해전 2회가 수행되었다. 한국해군이 전쟁기간 동안 수행한 주요 작전은 <표 2>와 같다.⁴⁴⁾ 이와 같이 많은 단독작전을 통해 한국해군은 독자적인 작전·전술교리 개발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상륙작전이 주 임무인 한국해병대도 상륙작전과 지상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전·전술 교리가 필요하였다. 최초의 상륙작전은 1950년 7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개된 포항상륙작전(Operation Blue hearts)으로서 7월 12일 시달된 미국동해군사령관 작전명령 제9-50호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작전에는 한국해병대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국해안에서 최초로 시행된 상륙작전이 부산교두보를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어 상륙작전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독일 제독이 지휘하는 포항공격부대(TF 90)는 게이(Hobart Gay) 미육군 소장이 지휘하는 상륙부대(TF 91)외에 전술항공통제전대(TG 90.4), 수송전대(TG 90.2), 예인전대(TG 90.3), 보호(소해)전대(TG 90.4), 정찰전대(TG 90.7), 통제전대(TG 90.8), 해안전대(TG 90.9), 후속선적전대(TG 90.0), 합포지원전대(TG 96.5) 등으로 구성되었다.⁴⁵⁾ 7월 18일, 19일 양일간 제1기갑사단이 포항에 상륙할 때 동해안지원전대의 전투함들이 포항 근해를 엄호하였고,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이 북한의 원산, 흥남, 평강 등지를 강습하였다. 포항상륙작전은 무혈의 대규모 상륙작전으로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44)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제68호(2008년 8월), p. 219.

45)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p. 212, p. 105.

〈표 2〉 6·25전쟁 기간 수행한 한국해군의 단독작전

연도	동 해	서 해	남 해
1950	옥계해전 대한해협해전 목호, 포항육전대방어전 장산동기습상륙작전 목호수복전 원산, 영흥만, 장전소해작전 홍남, 원산, 성진철수작전	인천, 군산, 목포방어전 서해안봉쇄작전 덕적도, 영흥도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목포상륙작전 진남포소해작전 진남포철수작전	여수철수작전 서.남해봉쇄작전 통영공방전 통제부방어부대전투 남해해역진격작전
1951	영흥만도서상륙전 38작전(경비) 원산봉쇄와 포위작전 목호, 여도상륙전 영흥만소해작전 원산포위작전 양도작전	웅진, 연백작전 제2차 인천상륙작전 서해도서전투 탁수작전(경비) 순위도포격전 병력, 피난민수송작전 교동도, 백령도, 석도점령전 신미도작전	목항작전(경비)
1952	42작전(경비) 원산봉쇄작전 양도방어전 해연작전(도서기습) 백려작전(첩보공작지원)	탁수작전(경비) 충무작전(경비) 연평도, 초도, 창린도상륙전 백려작전(첩보공작지원)	한산작전(경비)
1953	묘한작전(경비) 도서피난민수송작전 원산봉쇄작전 백구작전(도서기습) 제1해룡작전(호송)	금각작전(경비) 서해도서철수작전 제2해룡작전(호송)	노량작전(경비) 제3해룡작전(호송)

* 출처 :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제68호 (2008년 8월), p. 220.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미태평양함대의 상륙전훈련사령부로부터 파견된 항공함포연락중대와 상륙전부대의 전문요원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상륙작전 경험과 상륙작전·전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은 이후 시행된 인천, 원산, 이원에서의 상륙작전과 홍남철수작전에서도 크게 기여하였다.⁴⁶⁾ 미국동해군사령관 조이 중장은 “제1기갑사단의 적시 증원이 없었더라면 부산방어선은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포항상륙작전의 중요

46) Ibid., p. 103.

성을 높이 평가하였다.⁴⁷⁾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은 미합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의 심리적·전략적 장점과 정치적 신념에 의해 강행되었는데, 6·25전쟁에서 수행된 다른 어떤 작전보다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7합동기동부대사령관에 임명된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은 이 작전을 위해 예하에 선견공격부대, 항공지원전대, 함포지원전대로 구성된 공격부대와 봉쇄 및 엄호부대, 제10군단, 초계 및 정찰부대, 고속항모부대, 군수지원부대를 편성하였다. 제7합동기동부대의 총 함정은 230여 척이었는데, 이중 7만여 명의 제10군단 수송에 절반가량인 120척이 배당되었다. 1개 연대(제1, 2, 3대대)가 참가한 한국해병대는 미해병 제5연대에 배속되어 적색해안(월미도와 만석동 사이 해안)에 상륙하였다. 한국해군은 인천상륙작전에 PC-701·702·703·704, YMS-501·502·503·510·512·513·515, JMS-302·303·306·307 등 모두 15척이 참가하였다.

전형적인 상륙작전 방법으로 실시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현대 전에서도 여전히 상륙작전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도서가 많고, 세장형의 지리적 조건을 가진 한반도에서의 상륙작전은 전투력 투사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후 한국해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상륙작전의 표본으로 삼아 이에 대한 작전·전술교리 연구는 물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미해병대가 미군과 최초로 연합작전을 수행한 것은 1950년 8월 초의 진동리지구 전투였다. 이후 실시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을 비롯하여 원산·함흥지구 전투, 포항-영덕 및 영월지구 전투, 동부전선의 도솔산지구·김일성·모택동고지 전투에서 한국해병대는 미해병대 제1사단에 배속되어 연합전력으로 운용되었다. 한국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미해병대에 준하는 보병부대 장비를 처음으로 지급받고 사격훈련을 하였다. 무기를 지급한 미해병 1사단(주로 5연대)에서 차출된 교관들은 지상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국해병대에게 무기운용을 비롯한 각종 지상전에 대한 작전·

47)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44.

전술교리를 교육하였다.⁴⁸⁾ 한국해병대는 미해병대 제1사단에 배속되어 연합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륙작전을 비롯한 지상작전에 대한 작전·전술 교리를 획득하였고, 한편으로 독창적으로 한국지형에 적합한 작전 전술교리도 개발하였다.

4. 한국해군의 전문인력에 미친 영향

한국해군의 병과별 전문인력 양성에 영향을 준 것은 미군사고문단의 정책과 지원이었다. 한국해군은 전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사고문단의 지원에 힘입어 장차 독자적인 군 운용을 위해 병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미군사고문단이 정상군원자금으로 우수한 인력을 미군사학교에서 교육시킨 것은 한국해군에게는 당시 한국의 경제여건상 큰 혜택이었다.

전쟁발발 이전 한국에는 과거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중국군 등에서 복무한 육군장교 출신들이 많았지만, 해군장교로 복무했던 경력자는 한 사람 밖에 없었다.⁴⁹⁾ 일본은 한반도 통치기간 중 육군에서는 한국인을 선발했으나, 해군에서는 선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임무의 특성상 주로 비밀 무기를 취급했던 일본해군이 정보 누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⁵⁰⁾ 그래서 1945년 11월 11일 한국해군(당시 해방병단으로 호칭)은 70명의 소규모 인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초기부터 해군의 유경험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48) 김현기, 「해병대의 창설과 발전」, 『군사』 제68호(2008년 8월), p. 292.

49) 한국인 중 유일하게 해군장교로 복무했던 사람은 해군특교대 제4기로 입대하여 중령으로 임관, 제4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용운이다. 그는 도쿄고등상선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해군에 입대, 연합함대 소속 전함 항해사, 수뢰정 항해장, 구잠정 정장, 산고마루(三江丸) 함장 등을 역임하며 해군 소좌(소령 격) 계급까지 승진하였다. 그가 일본의 해군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의 양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이성호 제독 증언 : 2003. 6. 10)

50) 이성호 제독 증언(2003. 6. 10)

이러한 실정하에서 해방병단장 손원일은 처음부터 정규 사관학교를 통해 장교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당장 부족한 인력은 수시로 단원들을 모집하여 충원하였다. 모집된 단원들의 출신은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출신을 비롯하여 일본군, 만주군, 중국군, 광복군 출신과 일반 대학교 출신 등 다양하였다. 다행히도 해양업무에 종사했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출신자들이 해군으로 들어오으로써 약간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관생도처럼 시험이나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과거 경력만을 보고 수시로 모집된 장교들은 특별임관장교(이하 특임장교)로 분류되었는데,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전까지 모집되었다. 해군으로 전군한 군사영어학교 출신 22명도 1946년 12월에 특임장교로 임관되었다.⁵¹⁾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출신자는 48명이 해군에 입대하였는데, 이들은 기관, 갑판, 통신 등 선박운용의 경험자로서 초창기 해군사관학교 교관은 물론 함정인수 및 운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⁵²⁾

과거 해군에서 복무한 경력자가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해방병단장 손원일은 1946년 1월 17일 미군정청 운수국의 지원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정규 사관교육을 받은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는 외국해군과 연합작전 및 훈련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미군정청을 통해 미국교관을 초빙하였다. 이에 미국무성으로부터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 윌리엄 셔먼(William C. Sherman), 리처드 피트리(Richard Petry) 등 3명의 미국인 교관이 파견되어 영어는 물론 함정운용에 필요한 항해술 등을 생도들에게 가르쳤다. 미교관들은 생도들을 가르치면서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제도를 참고하여 해군사관학교 교육제도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하였다.⁵³⁾

51) 『건군 50년사』 28쪽에는 군사영어학교 출신자 23명이 해군에 전군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남철 제독은 전군자 명단 제출과 함께 해군에 전군한 인원은 22명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남철 제독 증언 : 2003. 10. 28)

52) 김재승, 『진해고등해원양성소교사』 (서울 : 도서출판 해안, 2001), pp. 211-214.

53) 오진근, 임성채 공저, 『손원일 제독』, p. 142.

해군사관학교는 교육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초창기 장교인력이 부족하여 해사 1, 2, 3기까지는 교육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관시킬 수밖에 없었다. 해사 1기생의 교육기간은 1년, 2기생은 1년 10개월, 3기생은 2년 6개월이었다. 3년제가 정착된 것은 정부수립 이후 1948년 9월 4일 129명이 입교한 해사 4기생부터였다. 이후에 입교한 해사 8기는 3년 5개월, 해사 9기는 3년 6개월이었고, 10기생부터는 4년간으로 정착되었다.⁵⁴⁾ 해군사관학교는 해군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 것이다. 해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창기에 단기교육을 마치고 임관시킨 육군사관학교⁵⁵⁾와는 달리 처음부터 정규 사관학교 제도를 적용하였다.

6·25전쟁 발발시 해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사관생도는 전쟁 발발 얼마 전 1950년 6월 4일 입교한 제7기생과 제4·5·6기생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수업이 중단되었다가 10월 2일부터 재개되었다.⁵⁶⁾ 사관생도들은 전쟁 중 수업이 중단된 기간에는 함상실습, 육상전투훈련, 공비소탕작전 및 미군 부대의 통역업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해군사관학교는 6월 26일 사관생도들로 구성된 해사독립대대를 발족시켜 학교방위에 임하였으나, 이후 진해군항방위사령부 제3대대에 편입되어 삼남지역을 비롯한 진해군항 방어 등 후방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육군사관생도들을 전쟁터에 보내 희생을 치르게 한 육군과는 달랐다.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은 생도들을 최전선 전투에 참가시킬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희생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3년간으로 그대로 유지시켰다.⁵⁷⁾

54) 해사 10기생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956년 4월 10일 졸업과 동시에 이학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날 해사 8기, 9기 졸업생들도 함께 학사학위를 받았다. 해사 8기, 9기 졸업자는 4년 교육의 학점이수를 위해 1956년 5월 18일부터 보충교육을 받았고, 해사 1기부터 7기 졸업생은 1960년 중반까지 보충교육을 받아 모두 학위를 취득하였다.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진해 : 해군사관학교, 1996), p. 66.]

55) 육군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제1기부터 제10기까지 기별로 다양하였다. 제1기의 교육기간은 1개월 반, 제2·3·6·7기는 3개월, 제4기는 4개월, 제5·8·9기는 6개월, 제10기는 1년이었다. [한용원, 『창군』(서울 : 박영사, 1984), pp. 82-83.]

56)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진해 : 해군사관학교, 1996), p. 93.

57) 한용원, 『창군』(서울 : 박영사, 1984), p. 90.

해군사관학교는 전쟁기간 동안 전투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과과정으로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조직을 개편하였다. 특히 휴전이 된 이후에는 1953년 8월 19일부터 4년제 교육이 실시되고 교수부의 조직, 평가 및 입시제도가 제정되었다. 교과내용은 인문학, 이공학, 병학, 체육학 등 4개 학과에서 훈련, 항해운영, 병기포술, 선박기관, 수학, 이공, 인문, 외국어, 위생, 체육 등 10개 학과로 대폭 확장되었다.⁵⁸⁾

해군은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으로 부대운용에 충당할 수 없어 정부수립 이후 1948년 6월 29일 설치한 해군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이하 해군특교대)를 통해 장교들을 획득하였다. 해군특교대는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병과별 장교를 단기간에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해군특교대의 전문 분야는 법무, 경리, 군의, 선박기술, 정훈, 기관, 시설, 병기, 통신, 수로, 기상 등이었다. 해군특교대는 병조장 출신을 제외하고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법무, 군의, 시설, 경리, 보급, 군목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들을 입교시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한 후 장교로 임관시켰다.⁵⁹⁾ 전쟁기간 동안 1950년 9월 15일 임관한 제10기부터 1953년 7월 6일 임관한 제16기까지의 후보생이 장교로 배출되었다.

특히 전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사고문단의 권고에 따라 미해군의 고등군사반과정을 도입하여 해군사관학교 내에 고등군사반과정을 설치하여 장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고등군사반과정 교육은 1951년 4월 5일부터 해군사관학교령 제14조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교육과목은 군법, 전자, 정보, 전술, 항해, 전공(電工), 조보(造補)(조합 및 보수), 통신, 박기(舶機), 해지(海指), 기상, ASW(대잠수함작전), 병기, 포술, 기항(機航), 함정운용, CIC(전투정보) 등 총 17개였으며 총 408시간이 편성되었다.⁶⁰⁾ 신병에 대한 교육훈련은 1952년 4월 13일 설치된 신병훈련소에서 실시되었으며, 각 기술병과교육대는 1952년부터 각 학교로 승격되어 해군종합학교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 pp. 222-223.

59)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1집, pp. 58-59.

60) 위의 책, p. 283.

예하로서 병과별로 전문교육이 실시되었다.⁶¹⁾

해병대의 교육기관은 1951년 4월 5일에 창설된 해병학교가 기간이 되어 1953년 2월 1일 해병대교육단이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교육단은 휴전시까지 해병학교·해병훈련소·기갑학교·통신학교를 예하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였다. 해병대는 병력의 확보와 강병육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시설의 미비로 각 군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해병장교는 해병학교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관되었으며, 해병특과장교는 1개월간의 특과교육을 이수한 후 임관되었다. 신병의 교육과목은 육군신병훈련 과목에 준하여 보통과, 병기과, 전투학과로 구분되었다.⁶²⁾

한국해군은 국내의 병과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군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1952년부터 매년 미국·영국·서독 등에 파견시켰다. 특히 미군 사교문단의 지원으로 미국에 파견된 장교들은 미군원자금으로 해군의 지휘참모과정을 비롯한 상륙작전·해상작전·소해작전·대잠작전·기관학·포술학·전기학 등에 대한 병과별 전문군사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이수한 장교들은 각 병과학교에 배치되어 장병들을 교육시키는 교관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해군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군사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위탁교육 제도가 1953년부터 실시되었다. 이에 1953년에 해군장교 8명, 1954년에 해군장교 2명이 일반 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하였다.⁶³⁾ 해외군사학교, 해외대학교, 국내대학교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은 <표 3>과 같다.

61)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2집, p. 279.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 pp. 259-260.

63) 위의 책, pp. 266-268.

〈표 3〉 해외군사학교·해외대학교·국내대학교 교육이수 인원

단위 : 명

연도	해외군사학교				해외대학교		국내대학교	
	해 군		해병대		해 군		해 군	
	장교	부사관	장교	부사관	장교	부사관	장교	부사관
1952	38		2					
1953	55	27	4				8	
1954	95	71	32	24			2	
1955	125	102	20	16	2			
1956	97	64	19	39	5		10	
1957	53	31	41	10				
1958	99	48	77	35			8	
1959	86	36	100	49	1		9	
1960	136	63	109	93			7	
계	784	442	404	266	8		44	

* 출처: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50. 6-1961. 5』(서울 : 국방부, 1987), pp. 266-268.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 해군의 각 병과학교에서 갑판, 항해, 포술, 전담, 기관, 통신, 조합 등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활동하였고, 아울러 미국 유학으로부터 획득한 군사지식을 활용하여 한국지형에서 운용될 수 있는 무기체계, 함정운용술, 해군작전, 전술교리 등을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미해군의 기동전술서를 모방하여 한글로 된 기동전술서를 개발한 것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5. 맺 음 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전쟁하에서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은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우려하여 가용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

3면이 바다이고 세장형의 지리적 특성을 지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다로부터 전투력 투사가 최상의 전투방법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해양에서 실시 가능한 모든 작전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상륙작전, 함포지원, 소해작전, 봉쇄작전, 수송작전 등이다. 한국해군은 전쟁 당사국으로서 연합국 해군과의 작전에서 적극적으로 작전에 임하게 되었고,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작전, 전술교리를 습득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국해군의 작전·전술교리 개발에 영향을 준 것은 유엔해군의 연합작전이었다. 한국해군은 상륙작전, 소해작전, 함포지원작전 등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진해군의 작전·전술교리를 획득하거나, 한국지형에 적합한 작전·전술교리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 수십년에 걸쳐 개발된 교리를 한국해군이 3년이라는 단기간에 획득 또는 개발했다는 것은 큰 수확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서 전세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대운용을 위해 한국군의 우수한 인력을 미군사학교에 유학시켜 인재를 양성시켰다. 한국해군의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미군사고문단의 정책과 지원이었다. 한국해군은 전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사고문단의 지원에 힘입어 장차 독자적인 군대운용을 위해 병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전쟁 중에 양성된 해군의 전문인력은 134명이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 한국해군의 각 병과학교에서 갑판, 항해, 포술, 전담, 기관, 통신, 조함 등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활동하였고, 아울러 미국 유학으로부터 획득한 군사지식·기술을 활용하여 해군무기체계, 함정운용술, 해군작전·전술교리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시행된 미국의 정책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해군력 증강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 정책은 휴전협정의 대책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할 수 있다. 한미 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방위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어 휴전 이후에도 한국해군력 증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군은

미군원자금으로 우수인력을 매년 미국의 군사학교에 파견시켜 작전·전술교리 등 선진해군의 군사지식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미해군과 연례적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하여 성분작전에 대한 전술교리를 획득하였다.

6·25전쟁은 한국해군력 발전에서 큰 전환점이었다. 6·25전쟁을 계기로 참전하게 된 미국의 지원에 의해 한국해군력이 유사 이래 획기적으로 증강되었고, 이때부터 한국해군이 비로소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으로 영해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은 오늘날 한국해군이 대양해군력 건설을 추진하는 데 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10. 3. 30, 심사수정일 : 2010. 4. 30, 심사완료일 : 2010. 5. 10)

주제어 : 6·25전쟁, 미국의 대한군사정책, 한국해군력, 유엔해군, 작전·전술교리, 전문인력, 연합작전, 미군사고문단, 군사원조, 교육훈련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olic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upon the ROK Naval Power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Operations, Tactics Doctrine and Professional Manpower -

Lim, Sung-chaе

With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occupied South Korea and passively supported South Korea with military assistance after due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dynamic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st power. After North Korea's invasion broke out in 1950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judged it as a challenge from the Communist power and dispatched troops, supported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 military assistance actively.

The United States received a commission of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rom United Nations and conducted a war with the UN Forces under the command of the U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war which was to repulse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behind the latitude 38 degrees north and regain the territories. The US established the operational command system, and chose a direct military assistance method by the US Forces such as tanks, warships, aircraft, ammunition and oil for the participants in a war at the local areas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war effectively. Meanwhile, as the war was prolonged and temporarily suspended, KMAC made an effort to cultivate a manpower of the ROK Armed Forces that ROK independently operate its military for the future. Then, the US, who judged that the objective of war had been achieved, concluded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and

the NKPA, and also entered into the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ROK as its measure.

In this way, the strategies and policies that the US carried out during the war had an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ROK Naval Power as well a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The influence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short-term impacts during the war and long-term impacts after the armistice. As for the short-term impacts during the war, a primary factor on each part and reinforcement level of ROK Naval Power is as follows.

1. The main factor of the development of the ROK Navy's operational and tactical doctrine is the combined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 Navy. The ROK Navy was able to acquire the operational and tactical doctrine of an advanced navy through a variety combined operations such as blockades, convoy operations, amphibious operations, mine sweeping operations and naval gunfire support operations. Also, the ROK Navy originally exploited operational and tactical doctrine that is suitable for the geographical conditions in Korean Peninsular. It was a huge acquisition that the ROK Navy obtained the doctrine in a short period of three years whereas other advanced nations had developed for several decades.

2. The support from KMAG affected the cultivation of manpower of the ROK Navy. The ROK's superior manpower went abroad for study in the US military school with the support from the KMAG to cultivate the specialists of each military branch. The trained manpower fulfilled a important role of building naval power, and also became the teachers after the armistice.

As a result, the Korean War was the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the ROK Navy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Because the ROK Navy was able to have the ability to defend its own territorial waters independently as a sovereign nation due to the United States 'policy and support during the war.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Military Policies for the ROK, the ROK Naval Power, the United Nations Navy, Operations, Tactics Doctrine, Professional Manpower, Combined Operations, KMAG, Military As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